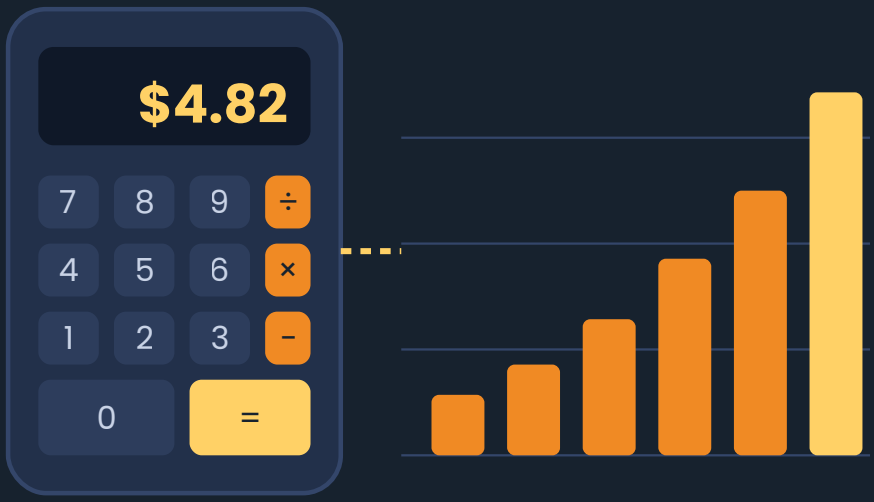


비개발자의 니치 웹툴 사이트 만들기

작은 계산기, 큰 자산

검색 수요 있는 틈새 고르기부터 계산 설계, AI로 만들기, 검색 유입, 광고·제휴 수익, 팔 수 있는 상태까지

222	35	41	60	7
쪽	개 장	복붙 프롬프트	니치 아이디어	단계 체크리스트

작은 계산기, 큰 자산

비개발자가 AI로 만드는 니치 웹툴 사이트: 틈새 고르기, 계산 설계, 제작, 검색 유입, 수익화, 매각 준비까지

지은이 AICONTENTLAB · 2026년 11월 초판 전자책

검색엔진 정책, 광고·제휴 프로그램 조건, 호스팅 요금제처럼 바뀔 수 있는 내용은 2026년 11월에 공식 문서로 확인한 기준이에요. 신청하거나 결제하기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책 속 검색량, 단가, 수익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이 책은 수익이나 매각가를 약속하지 않으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Google, AdSense, Amazon, Cloudflare, Vercel, Flippa, Mediavine, Raptive, Ezoic, Claude, ChatGPT 등은 각 회사의 상표·서비스이며, 이 책은 해당 회사들과 관련이 없어요.

이 전자책과 구매 파일은 구매한 분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판매해요.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지해요.

차례

머리말 6

PART 1 · 왜 계산기 사이트인가

01 글 사이트와 도구 사이트는 다르게 늙는다 11
02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계산한다 16
03 AI 검색 시대에도 도구가 남는 이유 21
04 계산기 사이트가 돈이 되는 네 가지 길 26

PART 2 · 틈새 고르기

05 좋은 틈새의 여섯 가지 조건 33
06 아이디어를 찾는 일곱 군데 39
07 수요 확인: 검색량, 추세, 자동완성 44
08 검색 결과 1페이지 뜯어보기 49
09 틈새 점수표로 하나만 고르기 54
10 영어 시장과 한국 시장 59

PART 3 · 계산 설계

11 공식을 찾고 출처를 남긴다 65
12 입력, 출력, 단위 71
13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법 76
14 틀리면 곤란한 계산 82

PART 4 · AI로 만들기

15 정적 사이트 하나면 충분하다 88

16 첫 계산기 하루 완성 94
17 손이 편한 화면 100
18 계산기 너머: 생성기, 표, 그림 105
19 배포: 도메인, Cloudflare Pages 110
20 빠른 사이트 116

PART 5 · 검색에 걸리기

21 도구 페이지 해부도 121
22 허브와 내부 링크 126
23 도구를 돕는 가이드 글 131
24 페이지를 찍어내면 생기는 일 135
25 제목, 설명, 구조화 데이터, 사이트맵 140
26 Search Console로 첫 신호 읽기 145

PART 6 · 수익

27 애드센스 신청과 광고 자리 151
28 제휴 링크 157
29 유료 기능, 다운로드, 후원 162
30 광고 네트워크 사다리 167
31 달러 받기: 세금 정보와 정산 172

PART 7 · 운영과 확장

32 숫자 읽는 법 178
33 도구를 늘리는 순서 184
34 3dprintcalcs.net 제작 기록 189
35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195

맺음말 201

APPENDIX · 부록

A 코드·설정 노트 204
B 니치 아이디어 60 209
C 체크리스트 모음 214
D 용어 사전 218
E 출처 220

TOOL SITE

머리말

2026년 11월 23일에 스레드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부동산만 플리핑하는 게 아니다,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판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제 글은 조회수가 백 단위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이 글은 5,200번 읽혔고 답글이 67개 달렸어요. 답글을 하나씩 읽어 보니 질문이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첫 사이트는 뭘 만들어야 해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다루는 범위

저는 지난달에 「사이트를 키워서 팝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사이트의 가치를 매기는 법, 도메인, 검색 최적화, 장부, Flippa에 올려 파는 과정까지 다룬 책이에요. 말하자면 "파는 법"이에요.

그런데 파는 법을 알아도 팔 사이트가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답글을 단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막혀 있었어요. 무엇을 만들지 모르고, 만들 줄도 모르고, 만들어도 사람이 올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 책은 그 앞 단계를 다뤄요. 그중에서도 처음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형태, **니치 계산기 웹툴 사이트**만 깊게 파요.

니치 계산기 사이트는 좁은 분야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계산을 대신해 주는 웹사이트예요. 3D 프린터 출력물의 원가를 계산해 주는 사이트, 수족관 물의 양을 재 주는 사이트, 벽지 몇 롤이 필요한지 알려 주는 사이트 같은 거예요.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입력칸 몇 개와 결과 숫자 하나가 전부인 페이지가 수십 개 모인 사이트예요.

왜 하필 계산기냐면

이유는 본문에서 길게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처음 이 형태를 골랐던 이유만 짧게 적을게요.

첫째, 만들기가 쉬워요. 회원가입도, 결제도, 데이터베이스도 없어요. 계산은 방문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요. 코드를 몰라도 AI에게 "이 공식으로 계산기 만들어 줘"라고 말하면 하루 안에 첫 페이지가 나와요.

둘째, 검색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필라멘트 비용 계산"을 검색한 사람은 지금 당장 숫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헷갈릴 일이 적어요.

셋째, 오래 가요. 글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계산 공식은 잘 안 바뀌어요. 한 번 제대로 만든 계산기는 몇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요.

넷째, 팔 수 있어요. 운영자가 매일 글을 쓰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이트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매각까지 생각한다면 좋은 출발점이 돼요.

이 책에서 약속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둘게요. 이 책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아요. "계산기 10개 만들면 월 얼마" 같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 숫자는 틈새마다, 나라마다, 운영하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제가 만든 3dprintcalcs.net도 아직 판 사이트가 아니에요. 지금 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34장에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한 일과 아직 못 한 일을 그대로 적었어요. 트래픽이나 수익 숫자는 적지 않았어요. 기록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숫자를 내세우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책 속 숫자 예시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숫자예요. 검색 정책, 광고 프로그램 조건, 호스팅 요금제는 2026년 11월에 공식 문서로 확인한 기준이에요. 이런 건 자주 바뀌니까 실제로 신청하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이 책은 일곱 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읽으면 사이트 하나가 완성되는 흐름이에요.

파트	다루는 것	읽고 나면
PART 1	왜 계산기 사이트인가	이 형태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PART 2	틈새 고르기	만들 분야 하나를 근거를 갖고 고를 수 있어요
PART 3	계산 설계	틀리지 않는 계산기의 설계도를 쓸 수 있어요
PART 4	AI로 만들기	첫 계산기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요
PART 5	검색에 걸리기	검색 결과에 나올 수 있는 페이지로 다듬을 수 있어요
PART 6	수익	광고와 제휴를 도구를 해치지 않고 붙일 수 있어요
PART 7	운영과 확장	숫자를 읽고 도구를 늘리고 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장마다 맨 앞에 "이 장을 다 읽으면" 상자가 있어요. 그 장의 목표예요. 장 끝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본문 중간에는 "복붙 프롬프트" 상자가 자주 나와요. Claude나 ChatGPT 같은 AI에게 그대로 붙여 넣어 쓰는 지시문이에요. 대괄호 [ ] 안만 내 상황으로 바꾸면 돼요.

부록에는 코드 노트, 니치 아이디어 60개, 단계별 체크리스트, 용어 사전, 출처를 모았어요. 본문에서 "부록 A"라고 가리키는 곳이 나오면 거기서 실제 코드 예시를 볼 수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HTML, 자바스크립트, 서버 같은 말이 낯설어도 괜찮아요. 저도 코드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책에서 필요한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마다 쉬운 말로 풀어 둘게요. 코드는 AI가 쓰고,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사이트를 키워서 팝니다」와의 관계

두 책은 이어져 있어요. 이 책이 "만들고 키우는 법"이고, 그 책이 "가치를 매기고 파는 법"이에요. 이 책만 읽어도 계산기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썼어요. 다만 도메인을 고르는 자세한 기준, 검색 최적화의 기초, 매각 절차는 그 책에서 더 길게 다뤘어요. 겹치는 부분은 이 책에서 짧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질문은 이거예요. 글을 쓰는 사이트와 도구를 주는 사이트는 무엇이 다를까요?

PART 1

왜 계산기 사이트인가

글 대신 도구를 쌓는 사이트가 어떻게 돈과 자산이 되는지 봐요

01 글 사이트와 도구 사이트는 다르게 늙는다

02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계산한다

03 AI 검색 시대에도 도구가 남는 이유

04 계산기 사이트가 돈이 되는 네 가지 길

CHAPTER

01

글 사이트와 도구 사이트는 다르게 늙는다

웹사이트로 돈을 번다고 하면 보통 블로그를 떠올려요. 글을 쓰고, 검색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광고나 제휴 링크로 돈을 버는 구조죠. 이 장에서는 그 구조와 계산기 사이트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볼게요. 둘 다 검색으로 사람을 모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늙는 방식이 꽤 달라요.

이 장을 다 읽으면

글 중심 사이트와 도구 중심 사이트의 차이를 운영 부담, 수명, 경쟁 방식으로 설명하고, 내가 어느 쪽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글 사이트는 매일 밥을 줘야 한다

글 중심 사이트를 운영해 본 분이라면 이 느낌을 알 거예요. 글을 안 올리는 주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실제로 많은 주제에서 글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2025년 최고의 무선 이어폰" 같은 글은 2026년이 되면 아무도 클릭하지 않아요. 제품이 바뀌고, 가격이 바뀌고, 검색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글 사이트는 계속 고쳐 써야 해요. 오래된 글을 갱신하고, 새 글을 보태고, 경쟁 사이트가 더 좋은 글을 올리면 다시 따라잡아야 해요. 저는 이걸 "매일 밥을 줘야 하는 사이트"라고 불러요. 밥을 주는 동안은 잘 크는데, 손을 놓으면 서서히 말라요.

또 하나, 글은 따라 하기 쉬워요. 내가 정성껏 쓴 "필라멘트 보관법"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비슷한 글을 쓰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해요. 요즘은 AI가 몇 분 만에 비슷한 글을 써 주니까 더 쉬워졌어요. 검색 결과 1페이지에 비슷비슷한 글이 열 개씩 늘어선 걸 자주 보게 되죠.

도구 사이트는 한 번 지으면 오래 선다

계산기 같은 도구는 달라요. 출력물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은 작년에도 올해도 같아요. 재료비, 전기료, 기계 감가상각, 인건비, 실패율, 마진. 이 구조는 잘 안 바뀌어요. 필라멘트 가격이나 전기 요금 같은 기본값만 가끔 손보면 돼요.

비유하자면 글 사이트는 매일 문을 열어야 하는 식당이고, 도구 사이트는 동네에 세워 둔 자판기예요. 자판기도 가끔 채워 넣고 고장 나면 고쳐야 해요. 하지만 매일 요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도구는 따라 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글은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지만, 잘 만든 계산기는 공식, 단위 변환, 예외 처리, 화면 설계가 한꺼번에 맞물려 있어요. 겉으로는 입력 칸 몇 개처럼 보여도 그 뒤에 "어떤 경우를 고려했는지"가 쌓여 있어요. 경쟁자가 따라 만들 수는 있지만, 글 하나 베끼는 것보다는 확실히 품이 더 들어요.

비교	글 중심 사이트	도구 중심 사이트
처음 만드는 수고	글 한 편은 쉬움	도구 하나는 글보다 품이 듦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낡아 갱신 필요	공식은 그대로, 기본값만 점검
베끼기	쉬움	상대적으로 어려움
방문자가 머무는 이유	읽을거리	숫자를 넣고 답을 받으려고
다시 오는 이유	새 글이 있을 때	같은 계산이 또 필요할 때
운영자 의존	글 쓰는 사람 목소리에 기댐	사람보다 도구 품질에 기댐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글 사이트는 쓰는 사람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가치의 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떼면 사이트의 색이 바뀌어요. 도구 사이트는 도구가 주인공이라, 운영자가 바뀌어도 방문자가 느끼는 차이가 작아요. 사이트를 언젠가 팔 생각이 있다면 이 차이가 커져요. 35장에서 다시 다룰게요.

다시 오는 사람이 생긴다

도구 사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다시 오는 사람이에요. 3D 프린터로 작은 출력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을 계산해야 해요. 수족관을 키우는 사람은 물을 갈 때마다 약품 양을 다시 재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좋은 계산기를 찾으면 즐겨찾기에 넣어요.

글은 한 번 읽으면 끝인 경우가 많아요. "PLA와 PETG 차이"를 한 번 읽고 이해하면 다시 같은 글을 찾지 않죠. 계산기는 같은 사람이 같은 페이지를 몇 달 동안 여러 번 찾아요. 검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방문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문은 검색 순위가 흔들려도 덜 흔들려요. 즐겨찾기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글 업데이트와 상관이 없거든요. 사이트 하나가 검색 한 곳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나중에 사는 사람에게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도구 사이트가 쉬운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도구 사이트가 무조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도구 사이트에도 분명한 약점이 있어요.

첫째, 계산이 틀리면 끝이에요. 글은 조금 부정확해도 독자가 걸러 읽어요. 계산기는 사람들이 결과 숫자를 그대로 믿어요. 공식이 틀리거나 단위를 잘못 바꾸면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서 PART 3 전체를 계산 설계와 검증에 썼어요.

둘째, 도구만으로는 검색에 잘 안 걸려요. 입력 칸만 있는 페이지는 검색엔진이 "이 페이지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도구 주변에 설명, 예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야 해요. PART 5에서 도구 페이지를 어떻게 짜는지 볼게요.

셋째, 페이지당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계산기 방문자는 숫자를 받고 바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광고 수익도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구 하나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도구 여러 개와 도움 글, 제휴 링크를 엮어 사이트 전체로 수익을 만드는 쪽이 맞아요. PART 6에서 다뤄요.

넷째, 처음에는 느려요. 새 도메인은 검색엔진의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려요. 첫 몇 달은 방문자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이 시기를 견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 **이것만 조심하세요**
>
> "도구는 한 번 만들면 끝"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끝나는 건 매일 글을 쓰는 부담이지, 관리가 아니에요. 기본값 점검, 오류 신고 처리, 검색 성과 확인은 계속 해야 해요. 다만 그 양이 글 사이트보다 훨씬 적어요.

글 사이트와 도구 사이트는 섞인다

실제로 잘 되는 사이트는 둘 중 하나만 하지 않아요. 도구를 중심에 두고,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글을 몇 편 곁들여요. 3dprintcalcs.net도 도구 20개와 가이드 8개로 되어 있어요. 출력 가격 계산기 옆에 "3D 출력물 가격 매기는 법" 가이드가 있는 식이에요.

이 섞는 비율이 중요해요. 글이 많아질수록 글 사이트의 부담이 따라와요. 저는 "도구 3개당 글 1편" 정도를 기본으로 잡아요. 글은 도구를 설명하고 도구로 데려오는 역할만 하게 해요. 이건 제가 정한 운영 원칙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23장에서 어떤 글을 붙이면 좋은지 자세히 볼게요.

내가 어느 쪽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 몇 개를 적어 볼게요.

- 글을 꾸준히 쓰는 게 즐거운가요, 아니면 부담인가요?
- 한 번 만든 것을 오래 다듬는 게 좋은가요, 매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은가요?
- 숫자와 공식을 따지는 걸 싫어하지 않나요?
- 언젠가 사이트를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글이 부담이고, 한 번 만든 걸 다듬는 게 좋고, 숫자가 싫지 않다면 도구 사이트가 잘 맞을 가능성이 커요. 숫자가 싫어도 괜찮아요. 공식은 찾아서 확인하면 되고, 계산은 AI와 코드가 해요. 여러분은 "이 계산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복붙 프롬프트 [대괄호]만 바꾸기

나는 웹사이트로 수익을 내 보려는 비개발자야.
내 성향: [글쓰기를 좋아하는지 / 숫자를 다루는 게 괜찮은지 / 주당 쓸 수 있는 시간]
관심 있는 분야: [취미, 일, 자주 검색하는 것들]
1) 글 중심 사이트와 도구(계산기) 중심 사이트 중 나에게 맞는 쪽과 이유
2) 도구 중심으로 간다면 내 관심 분야에서 떠오르는 계산 3가지
3) 내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약점 2가지
를 솔직하게 정리해 줘. 수익 숫자는 예측하지 마.

이 장 체크리스트

- [ ] 글 사이트와 도구 사이트의 차이를 표로 다시 적어 봤다
- [ ] 도구 사이트의 약점 네 가지를 이해했다
- [ ] 나에게 도구 사이트가 맞는지 네 가지 질문에 답했다
- [ ] 도구와 글을 섞는 비율에 대한 내 기준을 적었다

CHAPTER

02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계산한다

계산기 사이트가 성립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계산하고, 그 계산을 검색창에 묻기 때문이에요. 이 장에서는 "계산 의도"라는 말을 정리하고, 어떤 검색어가 계산기를 원하는지 알아보는 눈을 길러 볼게요.

이 장을 다 읽으면

검색어를 보고 그 사람이 글을 원하는지 계산기를 원하는지 구별할 수 있고, 계산 의도가 강한 검색어의 네 가지 모양을 알아볼 수 있어요.

검색어에는 원하는 것이 숨어 있다

같은 주제라도 검색어에 따라 원하는 게 달라요. 3D 프린팅을 예로 들어 볼게요.

검색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맞는 페이지
3d printer filament types	종류와 차이를 알고 싶다	설명 글
best 3d printer 2026	살 제품을 고르고 싶다	비교·추천 글
how to fix stringing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해결 가이드
3d print cost calculator	지금 내 출력물의 비용이 궁금하다	계산기

검색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맞는 페이지
how much filament for 20 hours	숫자 하나가 필요하다	계산기 + 짧은 설명

검색하는 사람의 목적을 검색 업계에서는 "검색 의도"라고 불러요. 보통 정보형(알고 싶다), 탐색형(특정 사이트로 가고 싶다), 거래형(사고 싶다)으로 나누는데, 이 책에서는 하나를 더 떼어서 봐요. **계산 의도**예요. "지금 내 숫자를 넣고 답을 받고 싶다"는 의도죠.

계산 의도는 정보 의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요.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답으로 만족해요. 계산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상황의 답을 원해요. "필라멘트 1kg으로 보통 몇 시간 출력하나요"는 정보 질문이고, "내 출력물은 87g인데 원가가 얼마예요"는 계산 질문이에요.

계산 의도가 강한 검색어의 네 가지 모양

검색어를 많이 들여다보면 계산 의도가 드러나는 패턴이 있어요.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봐요.

1. 도구 이름이 들어 있다. calculator, estimator, converter, generator, planner, 계산기, 변환기 같은 말이 붙어 있으면 거의 확실해요. "tile calculator", "BMI 계산기", "mm to inch converter" 같은 거예요.

2. 얼마나, 몇 개를 묻는다. how much, how many, how long, 얼마나, 몇 개, 몇 시간 같은 말이에요. "how much paint for a room", "벽지 몇 롤 필요" 같은 검색어예요. 이런 질문의 답은 그 사람의 방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결국 계산이 필요해요.

3. 숫자와 단위가 들어 있다. "20 gallon tank how much gravel", "1.75mm filament 1kg length", "300w 전기요금" 같은 검색어예요. 검색하는 사람이 이미 자기 숫자를 들고 있어요.

4. 변환과 비교를 묻는다. "ml to grams flour", "PLA vs PETG cost per print" 같은 검색어예요. 단위를 바꾸거나 두 선택지를 숫자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 **저도 이렇게 해 봤어요**
>
> 3dprintcalcs.net의 도구 목록을 정할 때, 3D 프린팅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을 이 네 가지 모양으로 분류해 봤어요. "필라멘트 남은 양으로 이 출력 끝낼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은 2번과 3번이 섞인 모양이었어요. 이런 질문이 자주 보여서 "남은 필라멘트 추정기"를 만들었어요.

검색 결과가 정답을 알려 준다

검색어만 보고 판단하기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직접 검색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검색엔진은 수많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클릭하고 만족했는지 학습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 1페이지가 곧 "이 검색어를 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답이에요.

검색 결과 1페이지에 계산기 페이지가 여러 개 보이면 계산 의도가 강한 거예요. 설명글만 가득하면 사람들은 읽을거리를 원하는 거고요. 둘이 섞여 있으면 계산기와 설명을 한 페이지에 함께 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검색 결과 페이지를 뜯어보는 법은 8장에서 자세히 다뤄요. 여기서는 "검색어 해석은 검색 결과가 판정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계산 의도는 검색창 밖에도 있다

검색엔진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계산 의도는 커뮤니티 게시판, 레딧, 유튜브 댓글, 카페 질문 글에도 넘쳐나요. 이런 곳의 질문은 검색어보다 길고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 "타일 60×60을 3.2평 거실에 깔려면 몇 박스 사야 하나요? 로스는 얼마나 잡아야 해요?"
- "어항이 90cm인데 여과기 유량은 시간당 몇 리터가 적당해요?"
- "레진 프린터로 피규어 하나 뽑으면 레진이 몇 ml 드나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계산기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질문 아래 달린 답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어디서 헷갈리는지도 보여요. 6장에서 이런 곳을 하나씩 뒤지는 법을 볼게요.

계산 의도가 약한데 계산기를 만들면

반대로, 계산 의도가 약한 곳에 계산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검색은 하지만 계산기를 원하지 않으니, 계산기 페이지는 검색 결과에 잘 안 올라가요. 올라가도 클릭이 적어요.

예를 들어 "커피 원두 종류"를 검색한 사람에게 "원두 비율 계산기"를 보여 주면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차이를 읽고 싶은 거예요. 반면 "핸드드립 원두 몇 그램"을 검색한 사람에게는 물 양을 넣으면 원두 양을 알려 주는 계산기가 딱 맞아요.

비슷해 보이는 주제 안에서도 계산 의도가 있는 검색어와 없는 검색어가 갈려요. 그러니 "커피 계산기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정하기 전에, 커피 분야 안에서 계산 의도가 있는 검색어가 충분한지를 먼저 봐야 해요.

작은 계산 하나에도 사람이 있다

계산기를 처음 기획하면 큰 계산을 떠올리기 쉬워요. 대출 이자, 연봉 실수령액, 세금 같은 거죠. 이런 계산은 검색량이 크지만, 큰 회사와 공공기관이 이미 계산기를 만들어 두

었어요. 게다가 돈과 세금이 걸린 계산이라 틀렸을 때 책임도 커요. 14장에서 이런 분야를 따로 다뤄요.

이 책이 권하는 건 작은 계산이에요. "필라멘트 남은 양", "어항 자갈 몇 kg", "케이크 틀 크기 바꿀 때 재료 비율" 같은 거예요. 검색량은 작지만, 검색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큰 사이트가 신경 쓰지 않는 계산이에요. 이런 작은 계산을 한 분야 안에서 여러 개 모으면 하나의 사이트가 돼요.

● 복붙 프롬프트 [대괄호]만 바꾸기

아래 검색어 목록을 계산 의도 기준으로 분류해 줘.
검색어: [검색어를 한 줄에 하나씩 10~30개]
분류: (A) 계산기가 정답 (B) 계산기 + 설명이 함께 필요 (C) 설명 글이 정답 (D) 제품 비교가 정답
각 검색어 옆에 분류와 한 줄 이유를 표로 적어 줘.
(A)와 (B)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입력할 숫자"와 "받고 싶은 결과"를 따로 적어 줘.
확실하지 않은 건 "검색 결과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 줘.

이 장 체크리스트

- [ ] 계산 의도가 무엇인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 ] 계산 의도가 드러나는 검색어의 네 가지 모양을 안다
- [ ] 관심 분야 검색어 10개를 계산 의도 기준으로 분류해 봤다
- [ ] 검색 결과 1페이지가 의도를 판정한다는 걸 기억한다

CHAPTER

03

AI 검색 시대에도 도구가 남는 이유

요즘 웹사이트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AI가 다 답해 주는데, 이제 누가 사이트에 들어가요?" 반은 맞는 걱정이에요. 이 장에서는 AI 검색이 어떤 페이지를 먼저 위협하는지, 계산기 같은 도구는 왜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지 차분히 볼게요. 미리 말하면, "도구는 안전하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덜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장을 다 읽으면

AI 답변이 대체하기 쉬운 페이지와 어려운 페이지를 구별하고, 계산기 사이트를 AI 검색 시대에 맞게 설계하는 원칙 다섯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AI 답변이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것

검색 결과 맨 위에 AI 요약이 뜨고, 챗봇에게 직접 묻는 사람이 늘었어요. 이때 가장 먼저 방문이 줄어드는 페이지는 "짧은 정보 하나를 알려 주는 페이지"예요. "PLA 녹는 온도", "1인치는 몇 cm" 같은 질문이요. 답이 한 줄이면 AI가 그 한 줄을 바로 보여 주니까, 굳이 사이트를 클릭할 이유가 없어져요.

일반적인 설명 글도 영향을 받아요. "PLA와 PETG의 차이" 같은 글은 AI가 여러 글을 모아 요약해 주기 좋은 형태예요. 요약을 읽고 만족한 사람은 원래 글을 클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산은 "내 숫자"가 필요하다

계산기는 조금 달라요. AI에게 "내 출력물 87g, 출력 시간 6시간 20분, 필라멘트 1kg에 2만 2천 원, 전기 요금 kWh당 150원, 프린터 소비전력 120W인데 원가 얼마야?"라고 물으면 AI도 계산을 해 줘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묻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받은 답을 다른 숫자로 바꿔 보고 싶을 때마다 다시 길게 물어야 해요.

계산기 페이지에서는 숫자 하나만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뀌어요. 여러 번 바꿔 보며 비교하는 일에는 계산기가 더 편해요. 비유하자면 AI 답변은 "길을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행인"이고, 계산기는 "내 위치를 넣으면 계속 길을 안내하는 지도"예요. 한 번만 물을 거면 행인으로 충분하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확인하려면 지도가 필요하죠.

또 하나, AI가 계산을 틀릴 때가 있어요. 공식을 잘못 고르거나, 단위를 헷갈리거나, 중요한 항목(실패율, 감가상각 같은 것)을 빼먹기도 해요. 반복해서 쓰는 계산일수록 사람들은 검증된 도구를 찾게 돼요.

> **이것만 조심하세요**
>
> "AI 시대에도 계산기 트래픽은 줄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글을 종종 봐요. 저는 그렇게 말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검색 화면 안에 계산기가 바로 뜨는 경우도 있고, AI 도구가 계산을 대신하는 경우도 늘 거예요. 이 장의 내용은 "글보다는 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비교이고, 숫자로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색 화면 안의 계산기도 있다

이미 검색 결과 화면에 계산기가 직접 뜨는 분야가 있어요. 단위 변환, 환율, 팁 계산, 대출 이자 같은 흔한 계산이에요. 검색창에 "100 usd to krw"라고 치면 검색엔진이 직접 숫자를 보여 줘요. 이런 분야에 계산기 사이트를 만들면 경쟁 상대가 검색엔진 자신이에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틈새를 고를 때 "검색 화면에 이미 계산기가 직접 뜨는지"를 꼭 확인해요. 뜬다면 그 계산 하나만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그 계산을 포함하되 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 "kg to lb"는 어렵지만, "3D 프린터 필라멘트 스풀 무게를 길이로 바꾸는 계산"은 검색엔진이 직접 보여 주지 않아요. 재료 밀도와 필라멘트 지름이 필요하거든요.

AI 검색에 인용되는 쪽에 서기

AI 답변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AI 답변도 어딘가에서 정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출처 링크를 함께 보여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출처에 내 사이트가 들어가면, 방문이 줄어든 만큼 다른 길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AI 검색에 어떻게 인용되는지는 「사이트를 키워서 팝니다」 16~18장에서 길게 다뤘어요. 계산기 사이트에 맞게 줄이면 이래요.

1. **공식과 출처를 페이지에 적어요.** "이 계산기는 이 공식을 쓰고, 이 기준값은 어디서 가져왔다"가 보이면 AI도 사람도 믿을 근거가 생겨요.
2. **예시 계산을 글로 보여 줘요.** "87g 출력물, 6시간 20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가는 이렇게 나와요"처럼 실제 숫자가 들어간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가 인용되기 좋아요.
3. **질문에 바로 답하는 문장을 둬요.** 페이지 위쪽에 "출력물 원가는 재료비, 전기료, 기계 감가상각, 실패 여유분을 더해서 계산해요" 같은 한 문장 답을 둬요.

4. **나만 가진 숫자를 만들어요.** 여러 필라멘트 브랜드의 실제 지름 편차를 정리한 표, 프린터 모델별 소비전력 표 같은 데이터는 다른 곳에 없는 정보예요. 이런 데이터가 인용될 가능성이 커요.
5. **도구를 써야 끝나는 질문을 노려요.** 한 줄 답으로 끝나는 질문보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질문을 중심에 둬요.

그래도 트래픽이 줄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AI 검색이 계속 커지면 검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계산기 사이트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1장에서 말한 "다시 오는 사람"이에요. 즐겨찾기로, 직접 주소를 쳐서,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링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계산기 사이트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다시 올 이유"를 넣어요.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자주 쓰는 설정을 브라우저에 기억해 두거나, 결과를 표나 PDF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은 18장에서 다뤄요.

다섯 가지 설계 원칙

이 장의 내용을 계산기 사이트 설계 원칙으로 정리해 볼게요.

원칙	하는 일	왜
내 숫자가 필요한 계산	상황마다 답이 달라지는 계산을 고른다	한 줄 답으로 대체되기 어렵다
검색 화면 계산기 피하기	검색엔진이 직접 계산해 주는 분야는 피하거나 더 좁힌다	검색엔진과 경쟁하지 않는다
근거 공개	공식, 기준값, 출처, 검토 날짜를 페이지에 적는다	사람과 AI 모두 믿을 근거를 준다

원칙	하는 일	왜
고유한 데이터	다른 곳에 없는 표와 기준값을 만든다	인용과 링크를 받을 이유가 된다
다시 올 이유	공유, 저장, 기억 기능을 넣는다	검색 밖의 방문을 만든다

복붙 프롬프트 [대괄호]만 바꾸기

내가 만들려는 계산기를 AI 검색 시대 기준으로 점검해 줘.
계산기 주제: [ ], 입력값: [ ], 결과: [ ]
1) 이 계산이 AI 한 줄 답이나 검색 화면 계산기로 대체되기 쉬운지(쉬움/보통/어려움과 이유)
2) 대체되기 어렵게 만들려면 추가할 입력값이나 기능 3가지
3) 페이지에 넣으면 인용되기 좋을 "고유한 데이터" 아이디어 3가지
4) 다시 올 이유를 만드는 기능 2가지
를 정리해 줘. 확실하지 않은 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해 줘.

이 장 체크리스트

- [ ] AI 답변이 먼저 가져가는 페이지 유형을 안다
- [ ] 내 계산 아이디어가 검색 화면 계산기와 겹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
- [ ] 다섯 가지 설계 원칙을 표로 정리했다
- [ ] "도구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덜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로 이해했다